



안녕하세요, 햇님쌤입니다. ^^

오늘은 실험적인 칼럼을 한 번 올려봅니다.

이름하여, **'Perfect Reading'** 입니다.

완전한 읽기란 무엇일까요?

완전한 구문 해석에서부터 완전한 의미의 이해까지를 말합니다.

수능 영어가 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극 추상적인 지문들이 배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논리'의 시대가 가고

'정확한 독해'라는 독해의 기본이 핵심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논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정확한 해석을 놓치고 있다든가, 깊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필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fect Reading에서는

정확하고 실전적인 해석에서부터 실질적인 의미파악의 과정까지를 모두 보여드리려 합니다.

즉, **해석에서 의미추출까지**이죠.

그리고, 이것이 되어야 바로 문제를 풀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백문이 불여일견,

햇님쌤이 뭘하려는 건지 바로 본 칼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칼럼의 수요층은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주로 중위권 수험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상위권 중에서도 정확한 해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 이건 너무 쉽잖아'라고 하는 생각 마시고,

한 번 따라해보세요.

쉽다고 무시했던 기본 때문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의 진행은 마치 강의를 하듯, 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 쓰구요.

죄송하지만, 편의상 빠른 호흡을 위해 경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 Perfect Reading #1

### 오늘의 문장

Those with low self-esteem account for their successes by finding reasons that are outside of themselves.

### 문장 해석

처음이니만큼 '해석'의 원칙을 먼저 밝힌다.

해석은 다음의 원칙대로 한다. 물론, 이것은 해석 연습의 원칙이다.

실전에서는 이것이 본인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재탄생되면 된다.

- ① 앞에서부터 뒤로 한 방향으로 나가며, 되돌아오지 않는다.
- ②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지나간 부분을 잊지 않도록 집중하고, 기억력을 훈련한다.
- ③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
- ④ 자신을 이해시키는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다.

자, 그럼 해석을 시작해보자.

Those

그들은

명사구는 한 묶음으로 끊는다.

문장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명사구는 S이다. S의 해석(~은, 는, 이, 가)을 정확하게 준다.

with lose self-esteem

낮은 자존감을 가진

전치사구는 한 묶음으로 끊고 해석한다.

전치사의 해석은 그 본질적인 의미의 공통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되,

너무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말이 되는 쪽으로 자유롭게 붙인다.

\* Those 전치사 N는 대체로 N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Those with N는 N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ex) thos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those with much money: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햇수

햇님쌤과 함께하는 공간!

<http://cafe.naver.com/hatsoo>



account

설명한다

동사는 앞 뒤로 끝는다.

account는 count에서 나온 동사로 '헤아리다'는 의미에서 '설명하다'로 주로 사용된다.

for their successes

그들의 성공들을

전치사 for가 있지만, 이 경우 account for N가 주로 'N을 설명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므로, for에 연연하지 말고 목적어처럼 해석한다.

by finding

발견함으로써

by Ving의 해석은 대부분 'V함으로써'라고 할 때 가장 자연스럽다.

reasons

이유들을

find의 목적어이므로 목적어의 해석을 정확히 준다.

that

뭐냐면

관계사의 해석을 뒤에서 앞으로 꾸며들어오게 하지 않는다.

또한 관계사 본연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본인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뭐냐면'이라고 해석한다.

are

있는

뒤에 outside가 가시권에 있으므로 얼른 보고 '있다'라는 해석을 준다.

be + 전치사(부사)의 경우 대체로 직역이 '~에 있다'가 가장 자연스럽다.

이것이 관계사절의 본동사이기 때문에,

꾸며준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있다'라고 하지 말고 '있는'이라고 꺾어준다.



햇수

햇님쌤과 함께하는 공간!

<http://cafe.naver.com/hatsoo>



outside

바깥에

of themselves

그들 자신들의

- 이제 다음의 끊어진 단위를 보고 거기에 맞춰 해석해본다.

Those/ with low self-esteem/ account/ for their successes/ by finding/ reasons/ that/ are/  
outside/ of themselves.

-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끊어진 단위를 보고 맞춰 해석해본다.

Those/ with low self-esteem/ account/ for their successes/ by finding/ reasons/ that/ are/  
outside/ of themselves.

몇 번이고, 의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해석해본다.

의미추출

Those with low self-esteem account for their successes by finding reasons that are  
outside of themselves.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설명한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것이 by finding으로 나오면서 '~함으로써' 설명한다고 이어진다.

다음 부분에서 핵심은 '자신들의 바깥에서'이다.

성공을 설명하는 이유를 자신들의 바깥에서 찾는다고 했다.

여기에서 '반례추론'을 적용해본다.

성공의 이유를 자신들의 밖에서 찾는 것의 반대는

성공의 이유를 자신들의 안에서 찾는 것이다.



햇수

햇님쌤과 함께하는 공간!

<http://cafe.naver.com/hatsoo>



그렇다면 성공의 이유를 자신들의 밖에서 찾는 것과 안에서 찾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다.

바로 성공의 이유가 자신들의 밖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문장 초반에 나온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과 매치시켜 생각하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의 이유를 자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의미를 완성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후의 글의 전개방향을 예측할 수도 있다.

즉,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후 역접과 함께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나온다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을 자신 때문으로 여긴다는 내용일 것이다.

정말로, 역접이 나온다면, 이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 문장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와닿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예측하는 독해'이다.

이제 이 문장을 **Build-up**을 통해 완전히 내 것으로 체화한다.

## Build-up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설명한다/ 그들의 성공들을/ 발견함으로써/ 이유들을/ 뭐냐면/  
있는/ 바깥에/ 그들 자신들의.



Build-up은 외우는 것이 아니다.

많이 생각하며, 많이 쓰는 것이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면서

자연스레 영어의 어순과

각 문장성분의 '약속된 해석법'을 익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보편적인 문장'들의 해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첨부한 연습지에 완전히 맞춰서 써본다.

이후에는 아예, 연습지가 없는 곳에 문장을 기억해서 써본다.

이때, 무조건 영어를 외워쓰지 말고,

우리말을 기억해놓고, 그 말을 떠올리며, 영작(build-up)을 한다.

우리말을 기억할 때에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뒷말을 자꾸 유추해내려고 노력한다.

즉,

사람들은(어떤 사람들?) → 낮은 자존감을 가진(애네가 뭘했지?) → 설명한다(뭘?) → 그들의 성공들을

(어떻게?) → 발견함으로써(뭘?) → 이유들을(무슨 이유들을?) → 뭐냐면(뭔데?) → 있는(어디에?) →

바깥에(어디 바깥에?) → 그들 자신들의.

이런 식으로 뒤를 자꾸 물어야만이 영어의 문장성분의 순서를 익힐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평상시에도 한국어를 할 때,

자꾸 영어의 어순으로 바꿔서 말하려 노력해보는 것도 좋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처음이니만큼, 여러 가지 팁도 함께 알려드렸구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일종의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고자하는

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이 있고,

원하시면, 계속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수

햇님쌤과 함께하는 공간!

<http://cafe.naver.com/hatsoo>



사실, 이것은 지금 오르비 클래스에 있는  
제 강의 '입구'의 축약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일도 '입구'의 것이구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 않는 문장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것만 들으시며 연습하면 됩니다.

어쨌든,

연습지와 오디오 파일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세요.

언어는 결국 체화, 즉, 반복에 길이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은 반복의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이것을 들으면서 머리로

빌드업을 해보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의 표시를 ^^



햇수

햇님쌤과 함께하는 공간!

<http://cafe.naver.com/hatsoo>